

안경디자인에 있어서 전통문양의 문화적 의미 연구

김대년 · 장준영 · 이경숙

대구보건대학교 안경디자인학과

투고일(2008년 10월 24일), 수정일(2008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2008년 12월 9일)

목적: 안경의 기능이 점차 문화적, 심리적, 사회학적 측면으로 확대 되는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위해 전통문양을 접목하는 방법 연구. **방법:** 전통문양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팔메트 문양 넝쿨장식문양 등의 문양연구와 전통재료기법의 하나인 자수기법, 조각보 기법 등을 안경의 템플과 안경 클리너 등에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응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과:** 세계화는 문화의 교차적 소비현상을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보편성위에 그 민족의 미적 특질이 잘 드러난 전통문양을 활용한 안경디자인은 오히려 세계 시장의 이러한 속성에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문양 및 전통기법을 활용하여 현대화함으로써 안경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현대 소비자의 문화적 욕구와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다. **결론:** 안경은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고, 현재의 심리적 언어로써 하나의 스타일을 표현해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전통문양을 활용한 안경디자인은 소비자의 문화적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기존의 안경디자인이 지니고 있는 서구 문화중심의 디자인 개념을 동양적인 미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주제어: 전통문양, 안경디자인, 문화적 소비 욕구

서 론

안경의 발명의 경이로움을 불테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께서 안경을 쓰라고 우리의 코를 만드셨다는 말인가?”라고. 현대의 인간에게 있어서 안경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처음 안경의 발명은 도미니크회 수도사 알레산드로 디 스피나 수사에 의해 발명되었다. 책을 대신 읽어주는 사동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안경의 발명은 그야말로 신의 축복이었다. 초기에 안경은 시력의 보정이라는 도구적 차원에서 인간이 활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오늘날 안경의 소비경향은 상징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된다. 즉 시대에 따라 안경을 사용하는 목적도 진화 하고 있다.

이러한 안경의 다기능성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눈의 기능을 도와주는 도구적, 실용적 기능의 측면이 있다. 안경의 근본적인 기능인 이러한 측면은 렌즈의 광학적인 발전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는 망막의 수술적 처치에 의해 안경의 도구적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둘째, 미학적, 장식적 기능의 측면이 있다. 패션이나 머리장식, 얼굴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안경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에 속한다. 1920년~30년대부터

패션 소품으로써의 안경의 기능은 더욱 강조되었다. 셋째, 심리적 · 문화적 · 사회학적 측면이다. 즉 안경을 착용할 때 디자인된 안경은 소비자의 심리적 · 문화적 측면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이처럼 안경의 다기능성은 그러한 기능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현대에는 이 문화적 · 심리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안경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경향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화적 소비재로써 안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안경디자인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전통문양의 이해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 지듯이 안경 디자이너는 우리 전통문양에 주목하고 그 문화적 고유성을 세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적 소비재로써의 안경

한 개의 안경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요?...” 이 말속에 함유된 의미는 안경의 형태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이미지에 중요하게 작

용함을 시사한다. 요즘 젊은 여성의 문화소비 경향은 서구 문화 중심에 있다. 유명한 상표의 이름만으로 안경을 소비하는 경향은 이를 대변한다. 이 때 안경은 서구문화에 대한 문화적 환상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안경은 사회학적으로는 문화를 소비하는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 그 사람의 심리적 언어, 혹은 정체성의 표상으로 상징되고 있다.

안경이 문화적 아이콘중의 하나로써 기능하게 된 것은 근대의 문명화된 인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로 인식되면서 부터이다. 한국의 경우에 실학파인 홍대용이나 김대건 신부의 안경 등은 근대적 지식인을 표상하는 문화적 아이콘이었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써 사용되었던 신체효의 안경, 맥아더나 박정희처럼 군부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수단으로써 안경, 김구나 간디처럼 평화적인 이미지를 표상해주던 둥근 안경 등 안경이 시력보정의도구로 작용하던 시대를 넘어 문화적, 사회학적 측면으로 소비되는 경향은 동·서를 막론하고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현대에 와서 연예인 등이 착용하는 ‘알 없는 안경’은 이러한 문화적 소비의 극단적인 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소비재인 안경은 오늘날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고, 현재를 증언하는 기능으로 하나의 스타일을 표현해내는 도구가 되었다.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은 “오늘날, 패션과 상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안경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착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광고는 특히 안경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¹⁾

이처럼 안경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독특한 매체로써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경의 문화적 이미지에 내포된 근대화된 지식인, 혹은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화적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 즉 서구에서 부는 오리엔탈리즘과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는 안경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의 문화적 소비 욕구가 “의미론적 소비”의 시대로 바뀌는 것과 맞물려 안경에 부여된 문화 현상은 보다 다각적인 차원으로 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문화소비의 현상을 짚어내고 안경디자인에 우리 전통문화의 미적 특질을 접목하는 일은 기존의 안경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안경디자인에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가진 독창성 있는 디자인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전통문양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전통문양의 이해와 안경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통문양의 문화적 의미와 유형

민족마다 고유의 전통문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적으로 그 문양은 그 민족을 구별하는 상징이 된다.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지닌 전통문양의 유형이 있지만 문명의 교섭과정에서 그 민족의 독특한 미감을 지닌 문양으로 변모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국적인 미적 특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팔메트 문양이나 넝쿨 장식문양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전통문양의 기능에는 사(邪)를 물리치고 복(福)을 구하는 벽사기복(辟邪祈福)의 상징성이 문양의 미적인 측면보다 강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통문양은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이미 친숙하게 경험되어 왔으므로 한국인의 정서에 심미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정감 있게 느껴진다. 우리민족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통문양은 장수, 부귀, 화합과 평안, 출세 등을 기원하는 길상적인 염원을 담아, 예로부터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서 장식되어 왔다. 이상적인 미(美)의 재현에 목적을 두었던 서양미술에서도 문양은 단순한 선과 형태가 아니라 상징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특히 동양예술에 있어서 전통문양에서는 어떤 내재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다. 그 내재된 의미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말한다.

조형양식에 나타난 상징성을 예를 들어 보면 백제무녕왕릉에서 발견된 왕과 왕비의 금제관식 및 뒤꽂이에서도 잘 드러난다(국보 제154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그림 1). 금으로 가공된 뒤꽂이는 단순하게 유연한 선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왕의 금제관식에 나타난 화려한 화염문양의 조형요소는 남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불꽃의 형태는 개방적이며,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왕비의 뒤꽂이는 연꽃이 꽃힌 보병(寶瓶)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수렴적인 여성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은유하고 있다. 또한 인동·당초·연화로 구성된 문양은 육조(중국)시대 하남성 자현에서 발견된 고분의 현실 벽화 문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꽃무늬와 인동·



그림 1. 무녕왕릉 왕의금제관식.



그림 2. 왕비뒤꽂이.



그림 3. 이집트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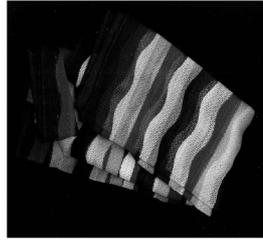


그림 4. 미쏘니 제품.

당초의 문양은 동양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백제의 양식이 육조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².

이것은 왕의 관식을 장식하는 금동관들의 문양은 미적 장식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과정에서 원천유물의 이미지를 먼저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창조적 발상의 기초 과정이다. 자연현상과 사물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디자인은 그 시대의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동안 사람의 걸을 함께 했던 동·서양의 문양들이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의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통의 해석을 통해 현재에도 유용한 디자인의 개발에 성공한 경우를 우리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미쏘니(Missoni)를 통해 볼 수 있다. 미쏘니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색채의 근원은 이집트의 도자기에 나타난 색채이다. 서양 미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의 도자기 장식에서 서양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가 탄생하였음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의미론적인 소비”의 현상은 안경디자인에 전통문양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인 디자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여 안경디자인에 접목할 수 있는 전통문양의 몇 가지 유형과 그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팔메트(palmette) 문양

그리스의 영경귀파에 속하는 아칸서스 문양을 지칭하는 ‘팔메트’는 당초 넝쿨과 결합하여 서양은 물론 동양의 중요한 장식문양이다³. 동·서양의 팔메트 문양은 근원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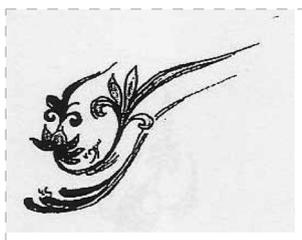


그림 5. 고구려고분벽화의 팔메트문양.

나이지만 각 민족마다의 독자적인 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유입된 팔메트 문양은 연꽃과 결합하여 유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편 팔메트와 함께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양은 넝쿨 장식 문양이다. 넝쿨의 생물학적인 특질이 계속 뻗어 나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원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넝쿨은 팔메트문양, 포도문양, 연화문, 국화문등과 결합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특한 의미론적인 조형세계의 근간을 이룬다. 특히 넝쿨 포도 장식은 포도알이 뜻하는 자손의 뜻과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거나 자손만대의 번창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로 동·서양의 문화에 즐겨 사용된 문양이다⁴. 이러한 당초문양 역시 우리나라에 접목되어서는 단아하게 정제된 곡선의미를 보여준다⁵. 즉 세계의 고대문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즐겨 사용된 이 문양은 보편적 상징성과 더불어 각 민족 고유의 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디자인 개발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2. 거치문(鋸齒紋)

삼각형 형태의 연속적인 문양을 거치문이라고 부른다. 톱니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는 이빨의 모습을 본떴다. 예로부터 튼튼한 이빨은 힘과 권력을 뜻했으며, 특히 호랑이나 범과 같은 강한 동물의 이빨을 소지하고 있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예로부터 신라의 춘장을 세울 때도 육부춘장들이 모이면 떡을 깨물어서 그 무늬의 크기를 보고 임금을 뽑았다. 니금(泥金)에서 임금을 뜻하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이빨이 튼튼하면 힘과 권력을 부여받아 재앙을 물리 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이러한 톱니바퀴형 거치문장식은 이집트의 고대문양에서부터 조선시대의 베갯모 테두리에 까지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식이 보인다. 그림 6에도 한 쌍의 아름다운 봉황이 오동나무 아래 깃들인 모습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어린 봉황들을 수놓아 다산을 기원했다. 이러한 염원들은 종이를 일일이 오려 붙여 실로 꿰어 매어 정성을 다한 거치문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기하학적인 형태의 거치문은 흔히 보이는 문양이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



그림 6. 조선시대, 베갯모 자수문양.

안경디자인에 있어 전통문양의 활용방안

전통문양의 속성과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할 때 보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안경디자인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현대의 안경 소비경향에 부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전통문양의 형식적인 차용이 아니라 내재적인 의미까지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1. 자수기법을 활용한 안경테

전통문양을 안경에 접목하는 방법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론적인 문양의 형태에 접근하는 방법과 또 한편으로는 문양의 표현기법에 주목하고, 표현에 나타나는 심미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조선시대 자수 베갯모의 자수문양에서 구조적인 도안의 형태뿐 아니라 동양적인 섬세한 감수성과 자연주의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림 7은 당초문양을 응용하여 만든 템플장식이며, 그림 8은 영원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당초문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도안이다. 이 도안을 그림 9에서처럼 자수기법을 응용하여 안경에 접목하여 보면, 재료에서 오는 동양적인 정서와 미감이 느껴진다. 즉 전통문양의 응용은 문양의 형태를 해석하는 방법과 동양적인 재료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작품은 여성용 안경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남성용 안경에서도 자수기법을 응용할 수 있으며, 기하학적인 거치문 장식을 자수기법으로 표현한다면 남성용 안경테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될 것이다. 실(絲)이 주는 자연적인 느낌은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준다. 안경테에 이러한 실과 섬유재



그림 7. 당초문양을 응용한 안경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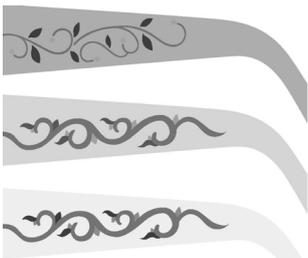


그림 8. 템플에 인동 당초문양의 응용.



그림 9. 자수문양을 응용한 여성용 안경.



그림 10. 베갯모 문양의 안경 클리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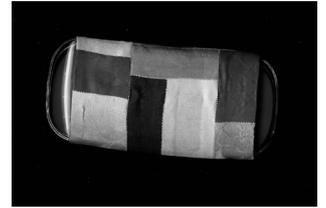


그림 11. 조각보 문양을 활용한 안경 케이스.

질이 주는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은 다양하며, 전통문양과 결합하여 독특한 미감을 지닌 안경디자인이 가능하다.

2. 자수문양을 활용한 안경 클리너

안경 클리너는 안경알을 닦는다는 기능과 함께 안경을 닦는 사람의 패션 소품이 되기도 하고 취향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0의 베갯모 문양 안경 클리너는 한국의 고유한 미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안경 닦이는 한국의 안경 브랜드를 세계적인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며, 동양적인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통문양을 응용하고, 활용한 안경 클리너는 안경이 하나의 문화적 소비재로써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더욱 다양하게 디자인되어야 할 분야이다.

3. 조각보 문양을 활용한 안경 케이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추상의 간결함이 우리의 전통 조각보 문양에서 더욱 아름답게 나타난다. 조각보 문양의 색채 대비는 강렬함과 단순함으로 사람들의 감수성을 명랑하게 하는 속성이 있으며, 현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⁶. 그림 11과 같이 안경 케이스와 안경 클리너 등에 이러한 전통문양을 활용한 안경디자인의 개발은 안경산업용 문화생산체로써 활성화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 론

세계화는 문화의 교차적 소비현상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의 고유성이 확보된 안경 디자인은 문화적 차별성이 오히려 세계 시장의 다양성의 요구에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국내 수요에 있어서도 서구적인 가치보다는 한국적 미감의 수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양에 대한 디자인적인 접근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론적인 측면과 전통문양제작에 사용된 재료기법과 문

양자체의 미적 특성의 측면 등이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전통문양은 팔메트문양과 거치문, 당초문 등의 몇 가지로 한정되었지만 더욱 다양한 유형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접근하여야 함을 과제로 남겨둔다⁷.

사실상 안경디자인이 성공하려면 디자이너의 감정적 측면과 소비자의 감정적 측면이 잘 결합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결합의 열쇠는 디자이너가 먼저 충분히 우리의 전통문양에 공감하는 일이다. 그런 뒤에야 우리 전통문양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공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에브라르 프랑크, 백선희 역, “안경의 에로티시즘”, 마음산

- 책, 서울, pp. 22(2005).
2. 이경숙,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연화의 양식적 특성과 상징성에 관하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84-93(2005).
 3. 林良一, “東洋美術의 裝飾文樣”, 同朋舍出版, 京都, pp. 88(1922).
 4. 이경숙, “영천지역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미술사적 의의”, 카톨릭 대학 전통문양센터, 대구, pp. 102-108(2007).
 5. 사포루 후지미와, 김복영 역, “미와 조형의 심리학”, 조형사, 서울, pp. 22(1999).
 6. 마르시아 뮐더 이튼, 유호전 역, “미학이론”, 동문선, 서울, pp. 57(1998).
 7. 오산, 박대남 역, “중국 역대 장식문양”, 춘추각, 서울, pp. 31(1996).

Cultural Value of Traditional Pattern in the Eyewear Design

Dae-Nyoun Kim, Jun-Young Jang and Kyoung Sook Lee

Department of eyewear design, College of Daegu Health Sciences

(Received October 24, 2008: Revised November 10, 2008: Accepted December 9, 2008)

Purpose: Study the method to attach to traditional pattern for the demands of eyeglasses' function which is becoming extended to cultur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Methods:** To understand the symbolic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pattern, especially through using palmette, embroidery, and practicing it on glasses' temple and cleaner. **Results:** Globalization stimulates crossing-consumption cultural trend rapidly. Thus, new glasses pattern involving Korean ethnic feature is a new source that could well adapt to this tendency. This report presents new aspect which corresponds to the demand of modern consumers. By modernizing Traditional pattern and method, we could discover the cultural value of glasses design. **Conclusions:** Glasses imply social position of users and became a measure that reveal a part of style that presents modern psychological language. Thus, the glasses design using traditional pattern makes a chance to change the beauty sense from western style to oriental one. And it achieves the desire of cultural consumption through glasses design.

Key words: Traditional pattern, glasses design, desire of cultural consumption